

## 왜 고통인가? 고통에 의미가 있는가?

유 속 자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교육연구소장

### 생로병사

(生老病死!)

태어날 때 고통스러웠는지 기억이 없다. 그러나 분만실에서 아기들이 웃지 않고 자지러지게 울면서 태어나는 것을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가 보다.

살면서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사랑 받고 싶은 것, 그러나 어느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없어 조바심치고 좌절하며 마음을 졸인다. 그렇게 젊은 나날을 간신히 살아가다 보니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하는 늙음, 질병, 죽음이 기다린다.

삶의 목적이 온전한 인간으로의 성장이며, 삶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라 한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나 보다. 아무리 의로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늙고, 아프고 죽어간다. 마지막 과제를 수행하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무력감과 허무감에 빠져 한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견디어 내는 놀라운 힘에 감탄하기도 한다.

옛그제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서운하게도 하던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다.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있는 곳일지 절대 무의 경지일지 모르는 세상으로 징한 고통을 마감하시면서 떠나셨다. 푸른 하늘, 구름사이로 웃고 계시는 듯 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지만, 가신 분은 저 세상에서의 당신 숙제를 하셔야 하고, 아직 살아 있는 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다.

삶에서 고통은 왜 주어지는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통을 겪으며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짧은 내 소견으로 그 해답을 답하기엔 역부족이라 먼저 이를 고민한 이들의 글을 읽어가며 같이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살면서 나쁜 일을 하면 하늘에서 벌을 내리고 좋은 일을 하면 하늘에서 상을 준다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커 왔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다. 성실하게 살며,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며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던 사람들이 즐지에 불의의 사고를 맞거나 암과 같은 중병을 선고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다. 이런 좋은 사람들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하느님이 그들을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인가?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정화시키기 위해서 일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자기교만이며 숨은 잘못들을 누우치도록 하기 위한 하느님의 응징인가? 그렇다면 하느님은 너무 불공정하고, 잔인하신 분이 아니신가?

해롤드 S 쿠슈너는 이런 의문에 대해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는 책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해롤드는 유대교의 랍비다. 어릴 때부터 독실하게 하느님을 믿으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전하고자 평생을 노력하던 랍비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프로게리아라는 병이 걸린 다음부터 전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다. 프로게리아는 조루병

으로 빨리 나이를 먹어 늙어 죽는 병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14살의 나이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느님은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 가족들과 죄 없는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과연 하느님은 선하시며 공평하신 분인가?' 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며, 과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를 고민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하느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일부러 주거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이 자연의 법칙이나 악한 사람의 의도로 인한 범죄로 인한 희생, 우연한 사고를 모두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이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고,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스스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질병과 죽음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거나 하느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성장시키기 위해 일부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고통 중의 우리에게 위로와 견디내실 힘을 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본향 가시는 길 바래다 드릴게요]라는 책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저자의 남편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느님을 좀더 잘 이해하게 한다. 저자의 남편은 암으로 긴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왜 하느님이 당신에게 암을 주셨을까요?' 부인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나가 놀다가 다치거나 병에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소. 우리의 부모인 하느님도 우리가 병에 걸려 죽어가기 바라지 않소. 다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고자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 글들을 읽으면서 고통 속에서 자칫 빠지기 쉬운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하느님에 대한 기대와 실망, 원망에서 벗어나 한없이 전선전미(全善全美)하신 하느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되니 전심으로 의탁하게 되어 내적 힘과 희망을 얻게 된다.

송봉모 신부님은 '고통 그 인간적인 것'이라는 책을 통해 고통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기술하였다.

고통이 주어질 때 인간은 누구나 '왜 내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는 것 같다. 송봉모 신부님은 성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5가지로 요약해 놓고 계신다. 첫째는 우리가 지은 죄와 그릇된 행위로 인해, 둘째는 죄가 별로 없는 착한 사람들은 나쁜 다른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단체로 기함을 받는 경우 셋째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무고한 사람까지 처벌하지는 않으시니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요한 9.3)'. 즉 고통은 신비라는 것이다. 넷째는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고 견책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고통을 겪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기 위한 대속적 고통관이다.

고통이 왜 주어지는지 아직도 충분히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느새 마음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난 지금 너무 괴롭다'는 한탄으로 넘어 간다. 예수님조차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느님께 절실하게 외치신다.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 하느님 뜻이야' 라는 어쭙잖은 위로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다만 침묵으로 함께 하는 것만이 위로가 될 뿐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직접 고통을 주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왜 고통을 창조하셨을까? 고통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자연법칙이라면 왜 그런 법칙을 만드셨을까?

고통이 없다면 삶이 어떨까? 학창시절에 ‘멋진 신세계’를 읽은 적이 있다. 미래에 고통 없이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만들어 병도 들지 않고 마음의 고통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미개한 지역에 남아있던 한 인디언이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어 매달리며 고통을 겪는다. 왜 그 인디언은 일부러 자학까지 할까? 고통이 없는 미래의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 고통이 없다면 과연 행복할까? 그저 무료할 뿐이며, 생기도 활력도, 깨달음도 없는 살아있는 무덤일 뿐이지 않을까?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어느 단편 소설에서 평생을 가난 속에서 남편 복 자식 복도 없이 지지리 고생만 하는 어머니를 둔 딸이 교도소에 아들이 다시 들어가는 장면에서 ‘엄마는 저 못된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다시 일을 나갈 것이다. 저것이 우리 엄마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구나’라는 독백을 하는 장면이 생각난다. 고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고통을 받아 안고 함께 견디며 살아가라 한다. 고통의 이면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진정 인간에게 의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껏해야 70여년 삶을 살다가 사그라져야 하는 인간에게 고통은 우리가 어찌지 못하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자연법칙이다.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깨닫기 전에는 삶이 고통스러웠는데, 깨닫고 나서도 삶이 고통스럽구나. 하지만 깨닫기 전에는 고통 때문에 심란하였는데 깨달음 뒤로는 심란치 않구나’ 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고통이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고 성숙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지만, 인생살이를 더욱 어둡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시련에 대한 우리 자세에 따라서 단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생을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길지 않은 내 삶에서 언제 고통이 왔는가 살펴보면, 세상을 좀더 넓고 깊게 이해해야 할 때 항상 껌데기를 벗는 아픔이 존재했었다. 그 껌데기를 내가 스스로 벗어 내는 과정에서 세상의 진리를 조금 더 알게 되며, 강해졌음을 깨닫는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남은 것이다.

산다는 것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의연하게 고통을 짊어지고 갈 것인가가 남은 숙제이리라.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리라 생각하며, 최민순님의 ‘주여, 오늘의 나의 길에서’라는 기도를 드려 본다.

주여,  
오늘의 나의 길에서  
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내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넓은 길, 편편한 길  
그런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와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 주소서.

성 아우구스티노가 '하느님은 악을 허락하시지만 이는 그것을 더욱 큰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의 어둠과 빛, 악과 선, 음과 양을 만드신 하느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한다.

아래에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암환우가 병을 얻게 되어 좋은 점 10가지를 썼는데, 이글을 함께 나누면서 부끄럽고 부족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병이 생기면 안되지만 생긴 이상 그걸 받아 들여야만 한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첫째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둘째로, 모든 일에 너그러워 진다.

셋째로,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넷째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다섯째로, 부지런해진다.

여섯째로, 이세상 전부가 아름답게 보인다.

일곱째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된다.

여덟째로, 나 자신을 돌보고 아끼게 된다.

아홉째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 준다.

열 번째는 아주 편해진다.

스스로 포기하고 마음을 비운다. 이런 일들은 병을 얻고 나서 변하게 된 것들이다.

슬픈 듯 너는 얼굴을 일세에 묻는다.

때로는 죽음에 몸을 맡기고

유령과 같은 빛을 숨쉬며

창백한 꿈을 꽃피운다.

그러나 너의 맑은 향기는

아직도 밤이 지나도록 방에서

최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한 가닥 은은한 선물처럼 마음을 적신다.

너의 어린 영혼은

불안하게 이름 없는 것에 손을 편다.

그리고 내 누이인 장미여,

너의 영혼은 미소를 머금고

내 가슴에 안겨 임종의 숨을 거둔다.

- 헤르만 헤세 -